

한일 신문 사설 어휘의 비교

신 민 철*

(e-mail: mcshin68@hanmail.net)

目 次

1. 머리말
 2. 신문 사설의 어휘조사
 3. 수량적 측면에서의 고찰
 4. 품사별 구성에서의 고찰
 5. 어종별 구성에서의 고찰
 6. 맺음말
-

1. 머리말

일반적으로 어휘라는 말을 들으면 단어 하나하나를 연상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실제로 ‘어휘=단어’의 뜻으로 ‘어휘적 의미, 어휘 수’ 등과 같은 용어가 언어학에서도 자연스럽게 통용되고 있다. 그러나 글자 그대로의 어휘는 단어의 집합이므로 엄밀히 말하면 ‘단어의 의미, 단어 수’라고 해야 할 것이다. 용어의 사용에 신중과 정확성을 기해야 할 언어학에서조차 어째서 이와 같은 어휘라는 용어의 오용이 보이는 것일까? 비교어휘론의 제창자인 다지마 이쿠도(田島毓堂) 씨는 그 원인을 어휘론의 ‘편파적인 발달(偏頗な発達)’에 있다고 보고 있다(田島毓堂1992).

어휘 연구는 크게 단어의 집합으로서의 어휘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와 그 요소인 단어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로 나눌 수 있다. 그 중 단어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로는 어지(語誌), 어구성론(語構成論), 의미론(意味論)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들 분야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과 함께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져 많은 성과가 있었다.

한편 단어의 집합으로서의 어휘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그 역사가 100년 정도에 지

* 한남대학교 부교수 일본어학

나지 않는다. 19세기말부터 언어교육과 언어정책을 위해 이루어진 대규모의 어휘조사가 그 시초이다(田中章夫1978). 그 밖에 어휘의 품사별 구성, 어종(語種)별 구성 등에 관한 몇몇 고찰도 있어 왔다. 그리고 최근에는 언어 간의 어휘 비교를 통해 어휘에 반영된 문화차를 지적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는 비교어휘론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와 같이 종래 단어의 집합을 대상으로 하는 어휘 연구에서는 여러 시도를 해 왔지만,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단어의 집합으로서의 어휘는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 했고 결과적으로 어휘라는 용어의 오용을 초래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어휘 연구의 편파적인 발달을 해소하고 어휘라는 용어의 오용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단어의 집합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 어휘에 대한 인식이 바뀌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 일환으로 지금까지 주로 “창가의 토토”(원작: 『窓ぎわのトットちゃん』)라는 동일 내용의 텍스트를 이용하여 어휘의 수량적 측면과 품사별, 어종별 구성, 그리고 의미분야별 구조분석법에 의한 한국어와 일본어의 어휘 비교를 통하여 각각의 특징과 경향을 지적해 왔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그러한 지적이 각 언어에 있어서 일반성을 띠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성격은 유사하지만 내용을 달리하는 텍스트로서 한국어와 일본어의 신문 사설 어휘를 대상으로 수량적 측면과 품사별, 어종별 구성에서 각 언어의 특징과 경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양 언어의 어휘를 좀 더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기술할 수 있다고 본다.

2. 신문 사설의 어휘조사

신문 사설로는 각각 조선일보(朝鮮日報)와 아사히신문(朝日新聞) 5일분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두 신문이 각국에서 주요 일간지 중 하나라는 것 이외에 특별한 의미는 없다¹⁾. 또한 다지마 이쿠도(田島毓堂1996)에 따르면 어휘를 통계적으로 다루는 데 확실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方丈記(異語 1148語, 延語 2527語) 정도의 규모가 거의 한계일 것이라고 하므로, 본고의 사설 5일분의 어휘 정도면 비교를 하는 데 별 문제는 없을 것이다. 전체 사설의 분량은 페이지 레이아웃과 글자 크기를 같게 했을 때 아사히신문 쪽이 반 페이지 정도 더 많게 나타났는데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1) 조선일보는 2007년 9월 30일~10월 4일의 사설, 아사히신문은 2007년 10월 1일~5일의 사설로 이전에 조사해 놓은 자료를 이용하였음을 밝혀 둔다.

어휘조사는 추출조사(抽出調査)와 전수조사(全數調査) 중 전수조사를 행하였다. 어휘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조사단위를 정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일본 국립국어연구소에서는 α 단위· β 단위, M단위·W단위, 장(長)단위·단(單)단위 등 여러 단위로 어휘조사를 행해 왔다. 그런데 그 기준이 세세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거기에 익숙해지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고 기억의 부담도 크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좀 더 간단하고 명료한 단위로서 한국어는 어절(語節), 일본어는 문절(文節)을 기준으로 해서 어휘 조사를 실시하였다.

어절은 계열(系列)과 통합(統合) 관계에 의해 나누어지는 한 마디의 말로 띄어쓰기의 기준도 된다. 또한 발음할 때는 어절 단위로 끊어서 발음할 수가 있다(남기심·고영근 1985). 한편 일본어의 문절은 하시모토 신키치(橋本進吉) 씨가 이름붙인 것으로 ‘문장을 실제 언어로서 가능한 한 많이 끊었을 경우의 가장 짧은 한 마디(文を實際の言語としてできるだけ多く区切った最短の一区切)’이며 다음과 같이 규정된다(『日本語百科大事典』(大修館書店, 1988) 참조).

- ① 일정한 음절이 일정한 순서로 나열되어 그것만은 항상 연속해서 발음된다.(一定の音節が一定の順序に並んで、それだけはいつも続けて発音される。)
- ② 문절을 구성하는 각 음절의 음의 고저 관계(악센트)가 정해져 있다.(文節を構成する各音節の音の高低の関係(アクセント)が定まっている。)
- ③ 실제 언어에서는 그 앞과 뒤에 음의 휴지(休止)를 둘 수 있으나 반드시 놓이는 것은 아니다.(実際の言語においては、その前と後とに音の切れ目を置くことができるのであって、必ず置かれるのではない。)

이와 같이 어절과 문절은 음성언어에 기초한 언어단위이기 때문에 이들 단위를 기준으로 하면 어휘조사가 비교적 용이하며 사람에 따른 편차도 적다. 이것은 다지마 이쿠도 씨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입증되었다(田島毓堂1986).

실제 어휘조사에서는 어절과 문절로 나눈 다음 그것을 다시 자립어와 부속어로 나누어 그 각각을 한 단위로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어휘조사를 행한 결과 한국어는 이어(異語) 1827語, 연어(延語) 6824語, 일본어는 이어(異語) 1483語, 연어(延語) 5390語가 각각 조사되었다.

3. 수량적 측면에서의 고찰

어휘조사 결과를 보면 조사 분량도 비슷하고 동일한 기준을 적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어(異語), 연어(延語) 모두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이번 조사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동일한 내용의 텍스트로서 “창가의 토토”를 대상으로 한 어휘조사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申玟澈2010)²⁾.

그러면 [표1]과 [표2]의 전도수통계표(全度數統計表)를 통해서 각각 어떠한 특징과 경향이 보이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표1] 한국어의 전도수통계표

度數	語數	異語累計	延語數	延語累計	累積使用率
179	1	1	179	179	2.62
163	1	2	163	342	5.01
153	3	5	459	801	11.74
150	1	6	150	951	13.94
144	1	7	144	1095	16.05
141	2	9	282	1377	20.18
129	1	10	129	1506	22.07
109	2	12	218	1724	25.26
90	1	13	90	1814	26.58
76	1	14	76	1890	27.70
74	1	15	74	1964	28.78
73	1	16	73	2037	29.85
72	1	17	72	2109	30.91
70	2	19	140	2249	32.96
68	1	20	68	2317	33.95
60	1	21	60	2377	34.83
59	1	22	59	2436	35.70
56	2	24	112	2548	37.34
54	1	25	54	2602	38.13
49	1	26	49	2651	38.85
42	1	27	42	2693	39.46
39	2	29	78	2771	40.61
37	1	30	37	2808	41.15
34	3	33	102	2910	42.64
33	1	34	33	2943	43.13
30	1	35	30	2973	43.57
28	1	36	28	3001	43.98
27	2	38	54	3055	44.77
26	1	39	26	3081	45.15
25	1	40	25	3106	45.52
24	1	41	24	3130	45.87
23	1	42	23	3153	46.20
22	1	43	22	3175	46.53

2) “창가의 토토” 1~10의 이야기를 조사한 결과 한국어는 이어(異語) 1610語, 연어(延語) 9772語, 일본어는 이어(異語) 1237語, 연어(延語) 8593語였다.

21	1	44	21	3196	46.83
20	1	45	20	3216	47.13
19	5	50	95	3311	48.52
18	2	52	36	3347	49.05
17	1	53	17	3364	49.30
16	4	57	64	3428	50.23
15	2	59	30	3458	50.67
14	3	62	42	3500	51.29
13	2	64	26	3526	51.67
12	6	70	72	3598	52.73
11	10	80	110	3708	54.34
10	8	88	80	3788	55.51
9	12	100	108	3896	57.09
8	18	118	144	4040	59.20
7	13	131	91	4131	60.54
6	36	167	216	4347	63.70
5	39	206	195	4542	66.56
4	57	263	228	4770	69.90
3	111	374	333	5103	74.78
2	268	642	536	5639	82.63
1	1185	1827	1185	6824	100

[표2] 일본어의 전도수통계표

度數	語數	異語累計	延語數	延語累計	累積使用率
320	1	1	320	320	5.94
244	1	2	244	564	10.46
239	1	3	239	803	14.90
221	1	4	221	1024	19.00
176	1	5	176	1200	22.26
166	1	6	166	1366	25.34
160	1	7	160	1526	28.31
126	1	8	126	1652	30.65
102	1	9	102	1754	32.54
99	1	10	99	1853	34.38
80	1	11	80	1933	35.86
71	1	12	71	2004	37.18
55	1	13	55	2059	38.20
51	1	14	51	2110	39.15
49	1	15	49	2159	40.06
46	1	16	46	2205	40.91
43	1	17	43	2248	41.71
36	1	18	36	2284	42.37

33	2	20	66	2350	43.60
31	1	21	31	2381	44.17
28	1	22	28	2409	44.69
26	1	23	26	2435	45.18
24	2	25	48	2483	46.07
22	2	27	44	2527	46.88
21	2	29	42	2569	47.66
20	1	30	20	2589	48.03
19	1	31	19	2608	48.39
18	2	33	36	2644	49.05
16	1	34	16	2660	49.35
15	3	37	45	2705	50.19
14	4	41	56	2761	51.22
13	1	42	13	2774	51.47
12	8	50	96	2870	53.25
11	3	53	33	2903	53.86
10	9	62	90	2993	55.53
9	5	67	45	3038	56.36
8	9	76	72	3110	57.70
7	13	89	91	3201	59.39
6	16	105	96	3297	61.17
5	34	139	170	3467	64.32
4	56	195	224	3691	68.48
3	96	291	288	3979	73.82
2	219	510	438	4417	81.95
1	973	1483	973	5390	100

먼저 누적사용률에서 50%를 넘는 단어 수를 보면 한국어는 상위 57語, 일본어는 상위 37語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국어 57語 중 38語, 일본어는 37語 중 24語가 부속어이다. 부속어 중 조사는 양쪽에 있지만 한국어의 어미, 일본어의 조동사는 각각의 언어에만 있는 것으로 어미는 19語, 조동사는 8語이다. 이것으로 상위어에서의 차이는 주로 한국어의 어미와 일본어의 조동사에 의한 차이임을 알 수 있다. 각각의 사용도수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한국어의 어미>

- ㄴ(관형사형전성어미. 153) -는(관형사형전성어미. 153) -다(종결어미. 153)
- 고(연결어미. 129) -었-(선어말어미. 76) -어(연결어미. 72)
- 르(관형사형전성어미. 70) -ㄴ다(종결어미. 56) -였-(선어말어미. 56)
- 지(연결어미. 42) -기(명사형전성어미. 39) -라(연결어미. 39)
- 면(연결어미. 34) -여(연결어미. 34) -은(관형사형전성어미. 34)

- 계(연결어미. 27) -았-(선어말어미. 19) -던(관형사형전성어미. 18)
 -라고(연결어미. 17)

<일본어의 조동사>

た(176)	だ(102)	ない(80)	れる(28)
ようだ(26)	たい(20)	られる(19)	う(18)

이것을 보면 일본어에서는 하나의 조동사 또는 조사에 의해 나타내지는 것을 한국어에서는 의미·용법이나 음운론적 환경에 따라 여러 개의 어미로 분화되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た:-있-/-있-/-았-/, て:-고/-어/-여’와 같다. 또한 한국어의 조사에도 음운론적 환경에 따라 ‘이/가, 은/는, 와/가, 을/를’과 같이 자음으로 끝나는 단어에 붙는 것과 모음으로 끝나는 단어에 붙는 것의 구별이 있다.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상위어에서 차이가 나는 것인데 이것은 앞에서 말한 “창가의 토토” 어휘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지적한 바 있다. 따라서 이러한 차이는 한국어와 일본어의 어휘에 있어서 어느 정도 일반성을 띠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누적사용률 50%를 넘는 단어 중에는 어떠한 자립어들이 들어있는지 보도록 하겠다. 먼저 한국어에는 ‘것, 하다, 있다, 대통령, 앓다, 없다, 되다, 국민, 수(의존명사), 후보, 이(관형사), 회담, 아니다, 경선(競選), 두(관형사: 二), 문제, 그러나, 위원장, 이번’ 19개의 자립어가 포함되어 있고, 일본어에는 ‘いる, こと, 成る, する, 無い, 言う, ある, その, 核, どう, この, 会談, 北朝鮮’ 13개의 자립어가 들어있다. 이들 자립어를 보면 한국어의 ‘것, 하다, 있다, 앓다, 없다, 되다, 수(의존명사), 이(관형사), 아니다’ 등과 일본어의 ‘いる, こと, 成る, する, 無い, 言う, ある, その, どう, この’ 등은 상기의 부속어와 더불어 각각의 언어로 언어활동을 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들로 이것을 기간어휘(基幹語彙)라 부르기도 한다. 한편 ‘대통령, 후보, 회담, 경선, 위원장’과 ‘核, 会談, 北朝鮮’과 같은 단어는 이번 사설의 어휘조사에서만 고빈도어로 나타난 것으로 대통령 선거, 남북정상회담, 북핵문제 등 당시의 사회적 배경을 반영하고 있다. 이와 같이 특정 어휘조사에서만 고빈도어에 나타나는 것을 기초어휘(基調語彙)라고도 한다³⁾. 그런데 기초어휘는 “창가의 토토”와 같은 일반 텍스트에서는 고유명사 이외에는 잘 드러나지 않는 반면 신문 사설과 같은 시사성이 높은 자료의 어휘조사에서는 확연히 드러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 기간어휘(基幹語彙)와 기초어휘(基調語彙)는 하야시 시로(林四郎) 씨가 정의한 것으로 각각 다음과 같다(林四郎1971).

기간어휘-어느 언어집단의 기간부로서 존재하는 어휘(ある語集團の基幹部として存在する語彙)
 기초어휘-특정 작품의 기초를 형성하는 데 작용하는 어휘(特定作品の基調を作るのに働く語彙)

4. 품사별 구성에서의 고찰

품사별 구성은 자립어와 부속어 구분 없이 모든 단어를 대상으로 하였다. 따라서 한국어의 어미와 같이 하나의 독립된 품사라고 볼 수 없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한 이유는 한국어의 어미에는 일본어의 조동사나 조사와 대응하는 것이 다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어미를 제외하면 비교를 함에 있어서 불균형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또한 품사를 특정(特定)할 수 없는 한국어의 ‘게(<것이), 이게(<이것이)’와 같은 준말과 일본어의 ‘於ける, のみならず’와 같은 연어(連語)는 각각 독립된 항목으로 분류하였으며 품사분류는 각 언어의 품사분류 기준에 따랐다. [표3], [표4]가 각각 한국어와 일본어의 품사별 구성이다.

[표3], [표4]를 보면 한국어와 일본어의 어미, 조사, 조동사는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기간어휘(基幹語彙)의 성격을 띠는 것으로 이어(異語)에서의 비율은 매우 낮으나 연어(延語)에서는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 밖의 품사에서는 한국어와 일본어 모두 명사의 비율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은 동사이며 형용사(일본어의 경우는 形容動詞 포함), 부사, 관형사(일본어는 連體詞)의 순으로 비율이 낮아지고 있다. 이와 같은 경향은 선행연구에서도 확인된 바 있으며 『図説日本語』(p.80)에 따르면 여러 언어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고 한다. 따라서 장르를 불문하고 어떤 자료를 조사하더라도 품사별 구성 자체는 규칙성을 띤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표3] 한국어의 품사별 구성

品 詞	異 語		延 語	
	語 數	比 率	語 數	比 率
名 詞	1127	61.69	2447	35.86
動 詞	388	21.24	906	13.28
形容詞	84	4.60	170	2.49
副 詞	78	4.27	161	2.36
冠形詞	39	2.13	141	2.07
助 詞	42	2.30	1599	23.43
語 尾	67	3.67	1397	20.47
준 말	2	0.11	3	0.04
합 計	1827	100	6824	100

[표4] 일본어의 품사별 구성

品 詞	異 語		延 語	
	語 數	比 率	語 數	比 率
名 詞	881	59.41	1704	31.61
動 詞	386	26.03	867	16.09
形 容 詞	29	1.96	93	1.73
形容動詞	60	4.05	91	1.69
副 詞	55	3.71	112	2.08
連 体 詞	9	0.61	55	1.02
接 續 詞	7	0.47	20	0.37
助 詞	37	2.49	1951	36.20
助 動 詞	17	1.15	495	9.18
連 語	2	0.13	2	0.04
合 計	1483	100	5390	100

품사별 구성에서 보았을 때 신문 사설 어휘에는 어떠한 특징이 보이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신민철(2005)에서 “창가의 토토” 전체 어휘 중 자립어만을 가지고 분류한 품사별 구성과 비교해 보도록 하겠다. 한국어에서는 체언을 명사, 대명사, 수사로 분류하는데 일본어에서는 전부 명사로 분류하므로 그에 따랐고 일본어의 접속사와 형용동사는 각각 한국어의 접속부사와 형용사에 대응이 되므로 한국어에 맞춰서 분류하였다. 그 결과 “창가의 토토” 자립어 어휘의 품사별 구성은 다음 [표5], [표6]과 같다.

[표5] “창가의 토토” 전체 어휘의 품사별 구성(한국어)

品 詞	異 語		延 語	
	語 數	比 率	語 數	比 率
名 詞	2249	48.9	13501	43.2
動 詞	1199	26.1	9438	30.2
副 詞	587	12.8	4217	13.5
形容詞	467	10.2	2697	8.63
感嘆詞	53	1.15	223	0.71
冠形詞	42	0.91	1183	3.79
合 計	4597	100	31259	100

[표6] “창가의 토토” 전체 어휘의 품사별 구성(일본어)

品 詞	異 語		延 語	
	語 數	比 率	語 數	比 率
名 詞	2004	53.6	11522	43.4
動 詞	999	26.7	8968	33.8
副 詞	327	8.75	3147	11.9
形容詞	326	8.73	1948	7.34
感動詞	65	1.74	206	0.78
連體詞	15	0.40	766	2.88
合 計	3736	100	26557	100

[표3], [표4]와 [표5], [표6]을 통해 신문 사설과 같은 논리성을 요하는 글에서는 부사, 형용사와 같은 품사가 적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명사에서는 이어(異語)의 비율이 신문 사설 쪽이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어 신문 사설이 명사 의존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런데 명사의 1회 평균 사용률(1회 平均 使用率)을 계산해 보면 신문 사설은 한국어 2.17, 일본어 1.93이고, 소설은 한국어 6.00, 일본어 5.74로 소설에서는 같은 명사가 여러 번 반복해서 사용되는 반면 신문 사설은 1회 내지 2회만 사용되는 명사가 많다는 경향을 볼 수 있다. 동사에서도 유사한 경향이 보인다. 이것은 신문이 보다 적은 낱말로 보다 많은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응축적인 문장(凝縮的な文章)’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이 때 힘을 발휘하는 것이 복수의 단어 연속(單語 連續)을 임시적으로 일어화(一語化)한 ‘임시일어(臨時一語)’인데(石井正彦1993), 이것은 문장의 낱말 수를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문(文)의 구조를 단순하게 하여 문장에 보다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는 가능성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임시일어(臨時一語)는 한자어에 의해 많이 실현된다.

한일 양 언어의 신문 사설 어휘에서는 ‘국보법, 자사고(自私高), 친노(親廬), 반노(反廬)’ ‘簡保、最高裁、生保’ 등과 같은 한자어 축약어, ‘경선(競選), 공동선언, 교육난민촌(難民村), 구속기준, 구인(拘引)제도, 국가장애위원회, 기상예측, 기여(寄與)입학제, 답방(答訪), 대선후보경선, 유명선거인단, 탈당(脫黨), 평균투표율, 폐당(閉黨), 하향(下向)평준화, 휴대전화투표’ ‘安定財源、救援組織、官、官業、供述、議長役、給油活動、刑事法學者、裁判員法、殺害放火、実務色、守秘義務、少子高齢化、所信表明演說、政權選択、接觸禁止、拉致問題’ 등 신문 이외의 어휘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 한자어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4음절 이상의 단어가 눈에 많이 띄는데 이와 같은 것들을 임시일어(臨時一語)로 볼 수 있을 것이다.

5. 어종별 구성에서의 고찰

어종(語種)이란 단어의 유래(由來)를 말하는 것으로 고유어(일본어에서는 일반적으로 和語라 함), 한자어, 외래어 그리고 이것들이 두 개 이상 결합된 혼종어(混種語)로 분류된다. 어종별 구성도 앞서의 품사별 구성과 마찬가지로 자립어와 부속어 구분 없이 모든 단어를 대상으로 하였다. [표7]이 신문 사설 어휘의 한국어와 일본어의 어종별 구성이다. 그리고 [표8]은 “창가의 토토” 어휘의 어종별 구성으로 비교를 위해 함께 제시한다. “창가의 토토”는 61개의 짧은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 1~10의 이야기를 조사한 결과이다. 조사 기준은 신문 사설 어휘와 동일하며 부속어도 포함되어 있다.

[표7] 신문 사설 어휘의 어종별 구성

語 種	異 語				延 語			
	韓 国 語		日 本 語		韓 国 語		日 本 語	
	語 数	比 率	語 数	比 率	語 数	比 率	語 数	比 率
固有語	589	32.2	555	37.4	4507	66.0	3749	69.6
漢字語	910	49.8	647	43.6	1868	27.4	1239	23.0
外来語	18	1.2	34	2.3	35	0.5	50	0.9
混種語	310	17.0	247	16.7	414	6.1	352	6.5
合 計	1827	100	1483	100	6824	100	5390	100

[표8] “창가의 토토” 어휘(1~10)의 어종별 구성

語 種	異 語				延 語			
	韓 国 語		日 本 語		韓 国 語		日 本 語	
	語 数	比 率	語 数	比 率	語 数	比 率	語 数	比 率
固有語	1156	71.8	906	73.2	8409	86.1	7642	88.9
漢字語	259	16.1	184	14.9	773	7.9	610	7.1
外来語	29	1.8	33	2.7	236	2.4	149	1.7
混種語	166	10.3	114	9.2	354	3.6	192	2.2
合 計	1610	100	1237	100	9772	100	8593	100

“창가의 토토” 어휘에서는 한국어와 일본어 모두 어종별 구성 비율은 고유어, 한자어, 혼종어, 외래어의 순이다. 반면 신문 사설 어휘에서는 한자어의 비율이 고유어를 능가할 정도로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앞에서 말한 임시일어(臨時一語)의

성격을 띠는 한자어의 영향으로 신문 사설 어휘의 특징을 어종별 구성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한자어와 혼종어에서는 한국어가, 고유어와 외래어에서는 일본어가 각각 약간씩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신문 사설 어휘와 “창가의 토토” 어휘가 동일하다. 이것으로 한국어가 일본어보다 한자어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일본어에서는 한국어보다 외래어를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일반성을 띤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이어(異語)만 보았을 경우 신문 사설 어휘는 “창가의 토토” 어휘와 마찬가지로 한자어와 혼종어(양 언어 모두 혼종어에는 한자어 성분을 포함하는 것이 많음)에서 한국어가 일본어보다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한국어에 그러한 단어가 많다는 것으로 한자어의 영향 정도가 한국어 쪽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어 신문 사설 어휘의 한자어와 혼종어에는 ‘계속(繼續)되다, 계속(繼續)하다, 구(救)하다, 반복(反復)하다, 수(數) 많다, 시작(始作)되다, 시작(始作)하다, 약(弱)하다, 원(願)하다, 취소(取消)하다, 피(避)하다, 향(向)하다, 각각(各各), 각기(各其), 대신(代身), 벽(壁)’ 등과 같이 일반적으로 일본어의 고유어에 대응하는 단어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과연(果然), 당장(當場), 도대체(都大體), 역시(亦是), 우선(于先)’ 등과 같은 한자어 부사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이처럼 한국어에서는 기본적인 단어에까지 한자어가 침투되어 있는데 그 원인은 다음과 같이 생각된다.

일본어의 경우 한국어보다 이른 시기에 한자로부터 독특한 가나(仮名) 문자가 성립되어(10세기 경) 고유어를 적을 수 있는 표기 수단이 갖추어져 있었고, 그에 따라 일본의 독자적인 한문훈독법이 고안되었기 때문에, 기본적인 고유어의 세력이 위축되지 않았다. 반면 한국어의 경우는 한자의 음훈(音訓)을 이용한 표기법인 향찰과 이두가 고안되는데 고유어를 표기하는 데 부적절했기 때문에 정착하지 못한다. 조선시대에 이르러 한글이 창제·반포되지만(A.D. 1446), 그 후로도 한자어는 계속 증가한다. 그 배경에는 한문 숭배 사상이 있다. 한국어에 있어서 한자어가 본격적으로 발달·정착하는 것은 신라 후기(10세기 초)부터인데, 고려시대에는 중국의 과거제도와 유교주의적 정치를 표방해서 실시하게 되며 사장(詞章)중심·문예중심의 경향이 나타난다. 그 때문에 이 시기에 한문학이 절정에 달해 귀족 사회에서는 한문만으로 일상생활이 영위되게 된다. 또한 유교적인 생활양식이 강요되었기 때문에, 한자어가 일반 민중에까지 보급되어 그 보편화가 촉진된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한국어 고유어의 세력이 위축된 것이다.

6. 맺음말

한국어와 일본어의 어휘 비교에서 일반성을 띠는 차이가 무엇인가를 알아보기 위해 “창가의 토토” 어휘를 대상으로 한 고찰과 신문 사설 어휘를 대상으로 한 고찰의 결과를 비교해 보았다.

같거나 비슷한 분량의 텍스트를 동일 기준으로 조사했을 때 이어(異語)와 연어(延語) 모두 한국어가 일본어를 크게 상회한다는 것, 상위어에서도 한국어가 높게 나타나는데 이것은 양 언어의 부속어의 차이에 기인한다는 것, 품사별 구성과 어종별 구성 자체는 양 언어에 있어서 유사하다는 것, 그리고 한자어와 혼종어에서는 한국어가, 고유어와 외래어에서는 일본어가 각각 약간씩 높게 나타난다는 것은 양쪽 고찰에서 모두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경향은 어떠한 어휘를 대상으로 하든 한국어와 일본어의 어휘 비교에서는 항상 나타날 수 있는 일반성을 띠는 경향 또는 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신문 사설 어휘에서는 다른 어휘 자료에 비해 기초어휘(基調語彙)가 확연히 드러나며, 보다 적은 낱말로 보다 많은 정보를 전달해야 하는 신문의 특성상 임시어(臨時一語)에 의해 명사와 한자어의 비중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것을 신문 사설 어휘의 특징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参考文献】

- 남기심·고영근(1985) 『표준 국어문법론 개정판』(塔出版社)
 石井正彦 (1993) 「臨時一語と文章の凝縮」(『国語学』173集)
 田島毓堂 (1986) 「語の単位—語彙論的見地から—」(『松村博司先生喜寿記念国語国文学論集』右文書院)
 田島毓堂(1992) 「語彙と単語」(『日本語学』14-5)
 田島毓堂(1996) 「D10について-付C50-」(田島毓堂編『語彙研究資料集新訂版』)
 田中章夫(1978) 『国語語彙論』(明治書院)
 林四郎 (1971) 「語彙調査と基本語彙」(『電子計算機による国語研究Ⅲ』国立国語研究所報告39)
 신민철(2005) 「韓日 比較語彙研究」(『韓南大學校論文集』제35집 인문·사회과학, 한남대학교 출판부)
 申政澈(2010) 「『窓ぎわのトットちゃん』語彙から見た日本語と韓国語の語彙」(『日本語学最前線』和泉書院)

要 旨

これまで、主に同一内容の『窓ぎわのトットちゃん』語彙を対象として色々な側面から韓国語と日本語の語彙比較を行い、各々の特徴と傾向を指摘してきた。しかし、それだけではそのような指摘が各言語において一般性を持つものであるとは断言できない。

そこで、本稿では、性格は類似しているが、内容を異にするテキストとして韓国語と日本語の新聞社説語彙を対象として比較を行い、その結果と『窓ぎわのトットちゃん』語彙を比較した結果とを照らし合わせ、韓国語と日本語の語彙の比較において一般性を持つ差は何であり、また、新聞社説語彙の特徴は何であるかを探ってみた。その結果は以下の通りである。

同じか似たような量のテキストを同一の基準で語彙調査した場合、異なり語と延べ語ともに韓国語が日本語を大きく上回っている。また、上位語においても韓国語の方が大きくなっているが、それは両言語の付属語の違いによるものである。なお、品詞別構成と語種別構成自体は両言語が類似しており、漢字語と混種語では韓国語の割合が、固有語と外来語では日本語の割合がそれぞれ若干ずつ大きくなっている。これは『窓ぎわのトットちゃん』語彙の比較と新聞社説語彙の比較の両方で見られる。従って、このような傾向はどんな語彙を対象としても韓国語と日本語の語彙の比較においては常に見られる、一般性を持つ傾向なり差であると言えよう。

一方、新聞社説語彙では、他の語彙資料に比べ、基調語彙が捉えやすく、また、より少ない語でより多くの情報を伝えなければならない新聞の特性上、「臨時一語」により名詞と漢字語の割合が相当大きくなっている。これを新聞社説語彙の特徴と見做してもよいのではないかと思われる。

キーワード：数量的側面 品詞別構成 語種別構成 語彙調査 異なり語 延べ語
臨時一語

투 고 : 2010. 2. 28

1차 심사 : 2011. 3. 19

2차 심사 : 2011. 4. 2